



김 태 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복지패널: 성과와 과제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패널조사가 갑자기 유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에 민간기구인 대우경제연구소에서 한국가구패널조사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후 199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을 시작으로 정부 산하의 다양한 연구 기관들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10개 이상의 패널 조사들이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한국복지패널은 다른 패널조사들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3년에 시작한 저소득 근로계층 중심의 자활패널, 2005년의 차상위·빈곤패널, 그리고 2005년에 시작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패널의 세 개패널을 합쳐 2006년부터 시작하였다. 이렇게 통합한 이유는 유사한 패널조사로 야기되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예산을 절약하여, 유효한 표본 숫자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국복지패널의 운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

대 사회복지연구소의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 현재 4차 조사를 마쳤다.

한국복지패널은 다른 패널조사들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점에서 독특하다. 다른 패널조사들이 대부분 특정한 인구학적 집단(예를 들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이나 특정한 분야(예를 들면, 노동, 의료 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비하여, 한국복지패널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3년에 한 번씩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한다(예를 들면, 2006년에는 아동 분야, 2007년에는 복지에 대한 인식, 2008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가조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패널조사들은 정부의 다양한 부처의 산하 연구기관에서 정책개발과 평가를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복지

패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패널로 정책개발 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조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 특히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하도록 의도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설문문항을 포함시킨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매년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대규모의 학술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다양한 학문분야(사회복지학, 경제학, 사회학, 보건학 등)의 수많은 학술적인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국내의 많은 패널조사들은 조사를 일반조사기관들에 용역을 주어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복지패널은 조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직접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조사 경험이 있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은 유능한 조사원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패널조사 연구원들이 이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세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 보다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복지패널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양질의 자료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신뢰성의 문제가 큰 소득이나 지출 수준에 대한 자료가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원가구 표본유지율이 높다는 점이다. 패널조사는 매년 동일가구를 추적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구를 얼마나 유지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복지패널의 원가구 표본유지율은 2차 년도는 92.1%이고, 3차 년도는 86.7%로 국내의 다른 어떤 대표적인

패널들보다 높고, 심지어는 미국의 대표적인 패널조사인 PSID보다도 높다.

마지막으로 한국복지패널은 국내의 다른 패널들과 비교할 때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이것은 표본의 50%를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을 할당하여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4년차 자료를 확보한 한국복지패널은 패널조사의 성격상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양질의 자료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업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매년 반복되는 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거부반응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원가구 표본유지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에 대한 관리(?) 비용이 커져야 한다. 또한 이 패널조사에 참여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들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은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사의 타당도나 신뢰도의 측면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의 오류를 잡아내는 작업을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해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더 많이 필요하다.

최근 외국의 학자들이 한국사회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영문으로 된 원자료가 부족해서 이들이 한국을 포함한 국가 간 비교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의 앞으로의 과제는 빠른 기간 내에 이 패널을 국제비교가 가능한 패널로 발전시켜, 이 패널을 이용한 국제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